

팬택 '베가 아이언2' 소니 '엑스페리아 Z2' 새 전략 스마트폰 나란히 국내 출시



팬택과 소니가 삼성전자 '갤럭시S5'에 대항하기 위해 나란히 새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팬택의 '베가 아이언2'(왼쪽)와 소니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

사진제공 | 팬택·소니코리아

성능 업·가격은 다운 “갤럭시S5 제 셋저라”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이 잇달아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팬택과 소니는 8일 나란히 새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와 '엑스페리아 Z2'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삼성전자 '갤럭시S5'의 대항마이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사가 사활을 걸고 낸 제품이라서 관심을 끈다. 또 70만~80만원대로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팬택은 이날 서울 상암동 R&D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베가 아이언2'를 공개했다. 12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미정이지만 70만원 후반대나 8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가 아이언2'는 코팅방식에서 탈피해 리얼 메탈을 정교하게 가공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선보인 엔드리스 메탈 안테나 기술을 발전시켜 더 많은 주파수 밴드를 지원함에도 안정적 성능을 확보했

▶팬택 베가 아이언2

세련된 '리얼 메탈' 디자인
국내 최초 F2.0 렌즈 탑재

다. 휴대성도 뛰어나다. 흡기와 DMB안테나를 적용하고도 7mm대 두께와 152g의 무게로 한손 조작이 편리하다. 이 밖에도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3220mAh 대용량 배터리, 5.3인치 풀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달아 뛰어난 성능을 자랑

소니 엑스페리아 Z2◀

IP58 '방진·방수' 기능 적용
2070만 화소 카메라 성능 업

한다. 최근 가장 경쟁이 치열한 카메라 부문 성능도 개선했다. 와이드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OIS)과 국내 최초 F2.0의 밝은 카메라 렌즈를 탑재했다.

소니코리아도 같은 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품 설명회를 열고 프리

미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 8일부터 소니스토어와 KT올레닷컴 등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하고, 19일 정식 출시된다. 가격은 79만9000원.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IP58 방진·방수 기능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순 침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수심 1.5m 이내의 담수에서 30분 동안 사용 가능해 수영장과 욕실, 주방 등에서 활용 영역을 확대했다.

또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해 차별화된 사진 촬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3200mAh 배터리, 5.2인치 풀HD 디스플레이를 달았다.

한편 LG전자도 이날 중 5.5인치 QHD를 단 'G3'를 공개하는 등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공짜폰 가장한 알뜰폰...이래서 믿고 쓰겠어?

가입 후 단말기 대금 청구...불만 폭주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알뜰폰'. 하지만 높은 인기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1분기 접수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의 70건에 비해 9.5배나 늘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현재 SKT(9개), KT(12개), LGU+(7개)를 통해 28개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불만을 신고한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공짜폰으로 안내하

고 가입 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 '고객센터 연결 불편' 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의 민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280건으로 63.0%나 차지했다. 이는 통신요금이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 판매 때 나이를 배려한 정확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상담을 신청한 가입자의 71%가 전화권유 판매로 가입했고, 가입자 중 27.6%(184건)는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도 계약할 때 ▲계약서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경제 브리핑

그랜드 엠베서더 '체리&베리 뷔페' 선풍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의 로비라운지&갤리는 10일부터 6월29일까지 체리&베리 디저트 뷔페(사진)를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보인다. 이번 체리&베리 디저트 뷔페에는 체리와 베리류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 20여 가지가 준비된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블루베리 크림 케이크, 새콤한 체리 마스카포네 트리플, 블랙베리 꿀리를 얹은 달콤한 카라멜 플로팅 등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와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 및 마쉬멜로 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초콜릿 파운틴이 준비된다. 스위트 베리 티와 산딸기 스무디, 커피가 함께 준비되어 디저트류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컬럼비아 '더위제로 캠페인' 마케팅 개시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가 여름 쿨링 시장의 리딩 브랜드를 목표로 공격적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적인 냉감 기술인 '옴니프리즈 제로'의 본격 출시에 맞춘 TV광고 공개로 '더위제로 캠페인(사진)'을 시작하고 이벤트, 프로모션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한다. 컬럼비아는 특히 TV CF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심장의 두근거림과 같은 강렬한 음향 효과와 함께 '옴니프리즈 제로'의 상징인 블루링, 주력 상품인 '쿨러 캐치 크루'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모델이 아닌 제품과 기술이 주인공이다. 아웃도어와 스포츠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여름철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고객층 공략도 시작한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과 제휴를 맺고 제품 협찬과 함께 마스터즈 골프 대회를 후원한다. 또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제휴를 통해 야구장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도 진행한다.

블랙야크 제주연수원 네이밍 공모전

히말라얀 오리지널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제주연수원의 네이밍 공모전을 이달 말일까지 실시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휴양단지의 성격과 제주도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연수원 이름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블랙야크 홈페이지(www.blackyak.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jeu@blackyak.com)로 접수하거나 제주도 내 블랙야크 매장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블랙야크 제주연수원은 2015년 서귀포시 새달동 일원에 준공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6월16일 블랙야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크린골프업체 1위 골프존 끼워팔기 등 과징금 43억원

전형적 '갑의 횡포' 공정거래법 위반

스크린골프 업체 1위 골프존이 거래업체를 상대로 끼워팔기, 지위남용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골프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업주들에게 특정 프로젝트 3개 제품을 지정해 강제 구입을 요구해왔다. 프로젝트는 시뮬레이션시스템 구성 장치 중 가장 비싸다. 이런 '끼워팔기' 방식으로 골프존이 지금까지 판매한 프로젝트는 총 1만7968대(대당 최고 330만원)에 달한다.

또 거래업체가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이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도 골프존은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골프존이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료를 보상했다.

이외에도 골프존은 거래업체 영업장에서 광고를 활용하고,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불인정한 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요해 이에 따른 수익금 60여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폐·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골프존의 이런 행위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2012년 기준으로 91.4%의 점유율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전국 5300여개의 스크린골프장과 거래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센스만점 포장이 소비자 유혹하네

식품·외식업계, 시각·스토리 활용 포장마케팅 대세

올 봄 식품·외식업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새로운 패키지를 활용한 포장 마케팅이다. 단순히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시각과 스토리를 활용하거나 브랜드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의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미적 감각과 실용성 모두 잡은 패키지 인기

도미노피자는 최근 베스트셀러 피자 2판과 사이드디시 4종을 하나의 박스에 담은 '도미노 울스타팩'을 출시했다. 피자 2판을 한 패키지에 담기 위해 박스를 부분 2단으로 구성했다. 기존의 사각 박스 형식에서 탈피해 내용물의 특징을 살렸다.

오투기에서는 진라면 광고 모델인 야구선수 류현진의 이미지가 담긴 진라면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류현진라면'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탄생시킬 만큼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적극 반영해 류현진 이미지를 기존 진라면 봉지 디자인에 삽입했다.

매일유업의 커피 브랜드 '바리스타'는 뉴비주얼 아티스트 신덕호, 한국 최초 원도 페인터인 나난 등 6인의 아티스트들이 협업한 디자인 패키지를 선보였다. 판매수익금 중 일부가 서울문화재단에 젊은 예술가 후원금으로 기부되는 의미 있는 패키지다.

본도시락은 '이런 냉이냉장 도시락'과 '고추장 먹고 맴맴도시락' 출시를 기념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피크닉 바구니 형태의 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패키지로 나들이를 즐기는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제격이다.

티젠에서는 '마음티 시리즈(사진)'를 출시하며 디자인이 이달우와 함께 한 콜라보레이션 패키지를 내놨다. 회사, 카페, 사우나 등 각각 다른 주제별로 '힐링', '첫사랑', '유머' 등 감성스토리를 담았다. 또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태그지를 적용한 거치식 디자인을 택해 감수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웅진식품에서는 두유 제품인 '대단한 콩'에 울룩불룩한 콩깍지 형태를 시각화한 패키지를 선보였다. 독특한 용기 디자인에 단순하고 깔끔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해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i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이보다 안전할 순 없다'

美 IIHS 충돌시험 세계 첫 전부분 만점

현대자동차 신형 제네시스(사진)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충돌시험 결과 승용차 세계 최초로 29개 부문 전 항목 세부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

특히 IIHS가 2012년부터 도입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에서 세부항목 전 부문에서 굿(Good) 등급을 받았다. 스몰오버랩 충돌 테스트는 차량을 시속 64km로 몰아 운전석 쪽 앞부분 25%를 약 1.5m 높이의 딱딱한 벽에 부딪히게 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스몰 오버랩' 평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형 제네시스는 차체 구조안전, 상해 정도, 데미 운동 제어력 등 전 부문에서 '굿'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세부항목 만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전면 충돌테스트, 측면 충돌테스트,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및 좌석 안전도 테스트의 세부항목 전 부문에서도 모두 '굿'을 획득했다. 아울러 자동제동장치의 성능을 평가하는 '충돌 회피 장치 평가'에서도 새롭게 탑재된 자동긴급제동(AEB)시스템을 통해 최고 등급인 '최우수(Superior)'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가 미국 충돌테스트 중 가장 까다롭다는 IIHS의 결과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판매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